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

2012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단양군의회

목 차

I. 연수목적 및 개요

- 1. 연수목적..... 3
- 2. 연수개요..... 3

II. 연수내용

- 1. 방문국 일반현황..... 5
 - 스위스 5
 - 프랑스 6
 - 영 국 7
- 2. 연수내용..... 8
 - 제네바시청 8
 - AREPA 노인요양원..... 8
 - 의원별 연수내용..... 13
 - 제안사항 43

III. 연수 후기

I. 연수 목적 및 개요

1. 연 수 목 적

- ☐ 창의적 인식개선과 글로벌자세 함양은 물론 지역현안과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양하여 군민을 위한 지역의 발전적 방안 제시와 관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 지역 현안 등과 밀접한 분야 중점 비교 연수를 통해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발전적인 대안 제시 등 지역 발전 방안 모색의 기회를 마련 하고자 함.

2. 연 수 개 요

- ☐ 기 간 : 2012. 9. 3.(월) ~ 9. 10.(월) / 8일간
- ☐ 방문국가 : 스위스, 프랑스, 영국
- ☐ 방문기관 : 제네바 시청(스위스), AREPA 노인요양원 (프랑스)
- ☐ 연수인원 : 6명 (의원 4명, 직원 2명)
- ☐ 연수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단양군의회	의 장	신태의	
2	단양군의회	부의장	장영갑	
3	단양군의회	의 원	김동진	
4	단양군의회	의 원	정상례	
5	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김창식	
6	의회 사무과	행정7급	정영순	

□ 연수일정

구분	요일	국가	출 장 일 정	비고
1일차	9. 3. (월)	인천 스위스	○ 이동 - 인천 → 스위스	
2일차	9. 4. (화)	스위스	○ 자연보존 실태 체험 - 영봉 중 가장 높은 융프라우 탐방 ○ 제네바 시청 방문	인터라켄 제네바
3일차	9. 5. (수)	프랑스	○ Arepa 노인요양원 방문 ○ 개선문, 상제리제 거리 ○ 베르사이유 궁전 탐방	파리
4일차	9. 6. (목)	프랑스	○ 선진관광자원 보존과 운용실태 비교시찰 ○ 루브르 박물관 내부 관람 ○ 세느강 유람선 탑승	파리
5일차	9. 7. (금)	프랑스 영 국	○ 대중 교통 운영 현장 시찰 ○ 에펠탑 ○ 몽마르뜨 언덕 ○ 런던도착	파리 런던
6일차	9. 8. (토)	영 국	○ 런던 도시기반 시설 시찰 ○ 국회의사당, 빅벤, 웨스트민스터사원 견학 ○ 대영박물관 관람	런던
7일차	9. 9. (일)	영국 러시아	○ 런던출발 모스크바 공항 도착 ○ 모스크바 공항 출발	
8일차	9. 10. (월)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II. 연수내용

1. 방문국 일반현황

□ 스위스

가. 일반현황

- 수도 : 베른(Bern)
- 인구 : 7,925,517명 (2011년 기준)
- 면적 : 41,284km²(한반도의 약 1/5)
- 주요도시 : 쥐리히(Zurich),
제네바(Geneve),
로잔(Lausanne),
루체른(Luzern)



- 민족 : 독일인(German), 프랑스인(French), 이태리인(Italian)
- 언어 : 독일어(German), 불어(French), 이태리어(Italian), 로망슈어
- 종교 : 카톨릭(48%), 기독교(44%), 기타(8%)
- 통화단위 : 스위스 프랑(SFR) 통화의 종류로는 10, 20, 50, 100, 500, 1,000 프랑의 지폐와 5, 10, 50프랑의 주화

나. 기타현황

- 스위스의 지방정부 조직은 26개 주(Kanton, Canton) 및 2,636개의 시·군(Gemeinde, Commune)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위임하는 사항, 거주민 등록, 민방위, 교육, 복지, 에너지, 도로건설, 지역 환경 관리, 세금 등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며 각 주는 독자적인 주헌법, 주의회, 주정부, 주법원 등을 보유한다.

- 주의회 및 군의회 의원선거는 매 4년마다 실시하며, 주의 크기에 따라 58명에서 180명의 주 의원이 있다. 시·군은 주 법규에 의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 입법권, 조세권, 행정권 등을 가진다.
- 시·군(gemeinde)은 주의 아래 단계에 해당되는 행정자치구역으로, 2009년 12월 현재 총 2,636개의 시·군이 있으며, 그 수는 점차 통합이 이뤄지면서 줄어드는 추세이다. 전체 4/5에 해당하는 시·군은 주의회 총회에서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중요 사항을 결정하며, 나머지 1/5의 시·군은 독자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 프랑스

가. 일반현황

- 수도 : 파리(Paris)
- 인구 : 62,448,977명(2009년 기준)
- 면적 : 551,695km²(한반도의 약 2.5배)
- 주요도시 : 리옹(Lyon),
마르세이유(Marseille),
보르도(Bordeaux)
- 주요민족 : 골족(Gaul)
- 주요언어 : 프랑스어(French)
- 종교 : 카톨릭(83%), 이슬람교(10%), 기독교(2%)
- 통화단위 : 통화 단위는 유로(Euro)로 2002년 03월부터 프랑(fr) 대신 전면 사용



나. 기타현황

- 프랑스의 기초 지방자치 단체는 코뮌이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와 같은 도시도 하나의 코뮌을 이루고 있다. 여러 코뮌들을 묶어 칸톤을 이루며, 여러 칸톤이 모여 아롱디스망이 되고, 아롱디스망이 모인 것은 데파르트망이라 한다. 몇 개의 데파르트망이 모여 레지옹을 이룬다. 프랑스에는 26개의 레지옹, 100개의 데파르트망, 36,682개의 코뮌이 있다.
- 프랑스는 6년마다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감독을 위해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에 지사(Préfet)를 파견한다.

□ 영 국

가. 일반현황

- 수 도 : 런던(London)
- 인 구 : 6,200,000명(2005년 기준)
- 면 적 : 241,752km²(한반도의 약 1.1배)
- 주요도시 : 에딘버러(Edinburgh),
리버풀(Liverpool),
캠브리지(Cambridge)
- 주요민족 : 앵글로 색슨
(Anglo Saxons), 켈트(Celts)
- 주요언어 : 영어(English)
- 종 교 : 성공회(29%), 카톨릭(15%), 기타(56%)
- 통화단위 : 파운드(£)를 사용하며 유럽 통화 가운데 돈의 가치가 가장 높음



나. 기타현황

- 영국 지방의회 의원의 총 인원은 22,268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당 평균 48명이며 주민 2,712명당 의원 1명 수준이다. 지방의원 선거는 4년마다 다수 득표제로 대부분 의회 의원 전원을 일괄적으로 선출하고 있으나, 일부 디스트릭트(District) 의회의 경우 1/3씩 개선한다. 영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30%~60% 정도로 60%~80%에 이르는 유럽 대륙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다수당의 대표가 집행위원장(Leader of the Council)을 맡고, 2명에서 9명 정도의 의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책 결정을 담당하며, 나머지 의원은 정책 평가와 조사 기능을 수행한다.

2. 주요기관 방문 결과

스위스 - 제네바 시청

□ 개 요

- 방문 기관 : 제네바시청
- 방문 일시 : 2012년 9월 4일(화)

□ 방문내용

- 제네바시 인구 : 188,068명 (45% 외국인)
- 경 제 : 제네바 주에서는 포도, 특히 토마토, 가지 등을 주 생산
- 제네바의 주된 분야 : 은행업무 및 재정재무, 무역, 생물 약제학 및 의학 기술, 시계 공업, 정신 수단 정보, 기술, 향신료 및 향수

- 정치체제 : 1개의 연합, 26개 주, 2700코뮌(최소 행정 구역)으로 구성
- 시의회 : 구성원 (80명), 임기 (4년), 비례 대표제, 심의회,
한달에 한번 정기회, 한달에 한번 공개회의
- 행정위원회 : 임기 (4년), 구성원 (5명), 다수체제, 정책 시행,
행정관리
- 시 행정 : 6000 공무원, 공공 정책
- 정부당국 부서 : 행정관리 총괄부, 국가 기록부, 중앙 행정부,
대외관계부, 법률부, 호적 관리부, 재무통제부
- 재정과 주택 부서 : 재정, 회계 및 예산, 경영관리, 전문직 세금,
조달 및 인쇄, 공영주택, 인사과, 환경 친화적 개발
- 국제적인 제네바는 UN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2개의 국제 단체(UNOG, HCR, HCHR, UNEP[REGIONAL
OFFICE, Global fund, UNAIDS, UNCTAD, ILO, WTO, WHO,
WIPO, ITU 등), 50개의 IO기관, 250개 NGO의 자문위원회가
제네바시 또는 주변에 있다. NGO에 의한 인권, 환경, 인도
주의 문제, 229개의 외교 사절단들이 있다.
- 제네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벤션 센터로 전문가들이 4,500개의
회의와 회담, 협회가 개최된다.



프랑스-AREPA 노인 요양원

□ 개 요

- 방문 일시 : 2012년 9월 5일(금) 14시30분
- 방문 기관 : Residence Les Terrasses de Meudon (AREPA)

○ 면 담 자

- Ms. Marie Lure Lebaron (노인주거협회 국제관계담당)
- Mr. Thierry Hanneke (내과부 요양원 원장)
- Ms. Carmel Serrie (홍보 부장)

○ 방문기관 특징

- 인간적인 관계와 전문 기술의 중요성을 최우선 (비영리 기관)
-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의사 등) 현재 65명 거주 (의료시설 겸비)
- 38명의 직원 (의사 1, 간호사 3, 보조간호원 6, 요리사 2, 도우미 11, 기타 사무직원)
- 주요시설
 - . 가족들과 수시 면담가능한 식당
 - .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숙소내 평상시 쓰던 가구 사용

○ 방문주제

- 노인주거협회의 조직과 역사 및 운영현황
- 고령화 인구를 위한 프랑스의 복지정책

□ 방문내용

○ 노인주거협회의 조직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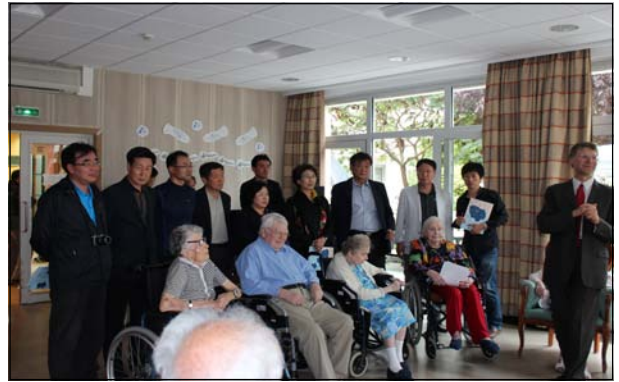
- A.R.E.P.A 노인주거협회는 1964년 프랑스 중앙 부동산 예금신탁은행 사회사업의 계획의 일환으로 프랑스 1901법령(1901Act)에 의해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설립목적은 고령자들을 동반자로서 인정하며 돌보고 생활을 공유함으로서 그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며 이것은 프랑스어로 Accompanyer 동반하다, Reconnaître 인정하다, Ecouter 돌보다, Partager 공유하다, Animer 활기를 불어넣다로 표현되고 있다.
- 2011년 현재 68개소의 주거지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 및 간병인의 보호 및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고령자등 총 4,600명의 고령자들이 1,200명의 노인주거협회 직원들의 도움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 노인주거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 노인친화적인 환경의 아파트 (Les logement)
파리시와 파리시근교 일드프랑스 지역에 43개소의 노인친화적 환경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2,600명의 자신의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독립된 방1개 혹은 방2개가 딸린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서관 및 여가시설 및 하루일과를 조정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간병서비스, 세탁물과 식사서비스 및 가사일을 돕는 도우미 서비스등도 제공한다.
- 간병활동이 가능한 요양소
파리와 아베, 샤론테, 코테드오, 드롬프, 모비안, 드네, 비엔느에 26개소의 요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980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하지 않고 일상 생활적 도움과 약물적 치료가 필요한 고령자가 생활하고 있다. 이씨레몰리노시(파리근교위치)의 요양소는 치매로 인한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는 고령자들만을 위한 요양소로 운영되고 있다.



○ 고령화 인구를 위한 프랑스의 복지정책

- 프랑스의 노인복지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 등에 대해 소득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라 달리 보장하고 있다.
- 소득정책은 소득수준에 따라 나뉜다. 저소득층은 기본생활보장금, 생활부조 등이 있으며 고소득층은 노령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
- 사회적 서비스로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소득층의 경우 고령자클럽, 여가촉진사업(문화활동요금할인), 노인대학 교육프로그램, 교통편의 프로그램(이용요금 할인) 등이 지원된다.
- 이중 여가문화 정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역단위의 노인클럽이 1975년 지역사회 노인보호 원칙의 일환으로 개발돼 현재 지자체 단위로 구성돼 있다. 이 클럽은 일반적인 놀이 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 습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가사원조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자택이나 고령자 주택에서만 활동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보기 · 산책 ·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3. 의원별 연수내용

신태의 의장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공항을 경유하여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 근처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뻘뻘한 일정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 역에 도착하였다.

역 입구에 세워진 안내데스크는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융프라우 철도 100주년 기념 여권을 홍보용으로 발급하여 주었다.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으며 홍보효과도 있었다. 인터라켄으로 이동하여 약 100년 전에 만든 산악열차를 타고 융프라우까지 3,454m 고지대로 올라갔다. 스팅스 전망대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취 빙하가 장관이었다.

알프스의 만년설로 스위스는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알프스에서부터 내려오는 많은 수자원은 스위스 전역을 풍부한 먹거리와 자연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이 이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면 철두철미한 제한과 규제로서 많은 환경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였다.

광양한 들판에 이상하게도 농사의 일손은 우리와는 정말 다른 농경지가 눈에 띄었다. 우리 농경지는 멀텅 비닐로 농사를 짓고 있는 반면 넓은 들판에 비닐 멀텅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모습은 어떻게 농사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만하다.

첫 공식방문지인 제네바시청을 방문하였으며 이곳은 제네바 시 행정중심부로서 시내 인근에 있는 작은 청사였다. 국제기구로서의 제네바, 제네바의 정치적 시스템, 미래의 제네바 모습 등 책임자로부터 간단한 설명과 안내로 시 청사 내부를 관람하였다.



<윙프라우 정상>



<제네바시청>

행정정책의 결정은 각 부서의장들이 모여 토론을 통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각부서의 토론과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만 의회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정말 인상 깊은 행정체계가 아닌가 한다.

3시간 20분이 소요되는 TGV 철도를 타고 스위스에서 파리에 도착했다. 찬란했던 절대 왕권 절정기의 상징 베르사이유 궁전을 관람하였다. 50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탄생한 베르사이유궁은 그 규모가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베르사이유궁전, 정원들과 공원, 트리아농 궁전들과 마리 앙트와네트 영지 등 전체를 관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우리팀은 궁전내부를 관람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했다.

다음날 아레빠 요양원을 방문하였다. 들어가는 입구 안내 데스크에 붙어 있는 태극기와 요양원 원장님의 온화한 미소, 친절함, 요양원의 시설 등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요양원과는 상반되는 느낌이었다. 요양원의 침실에는 본인들이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가져와서 사용함으로써 친근감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식당의 경우 식사는 물론이고 가족들과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요양원 입구>



<설명 하고 있는 원장님>

아레빠는 비영리 단체로 70개 조직으로 파리에 상주하고 있고 일반 의료요양원, 일반요양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재활, 간호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한달에 3,500 유로라고 한다. 국가의료보험 20%, 도지원 15%이라고 한다. 복지는 국민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이 사망할 때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처리한다.

다음으로 간 곳은 루브르 박물관이다. 루브르 궁전은 800년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원래는 궁전이었으나 지금은 미술관으로서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고대 오리엔트 미술, 이집트, 그리스, 에트루리아, 로마, 루브르의 역사와 중세의 루브르, 회화, 조각, 예술품, 그래픽미술, 이슬람 미술 등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 역시 박물관 전체를 관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의 모나리자, 비너스 조각 등을 보려고 온 관광객들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박물관 밖을 나와 보니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자 길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멋진 풍경이었다.



〈박물관 피라미드 중앙입구에서〉



〈루브르 박물관 앞〉

다음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인 1889년에 세운 높이 320.75m의 탑으로 구스타프 에펠이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운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으로 향했다. 관광객들은 많고 엘리베이터 하나는 고장이 나서 우리 일행은 걸어서 에펠탑 2층까지 올라가서 바라보는 파리시내의 전망은 정말로 장관이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대여, 반납이 손쉬운 전기자동차 대여 시스템인 오토리브, 회원제를 이용 주민들의 연회비로 운영되는 벨리브(자전거 보관소) 등은 친환경적 이동수단 확보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제도이다.



<오토리브>



<벨리브>

주차시설은 고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조그마한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도시설계인 것 또한 분명하며 정책의 세심함을 엿 볼 수 있었다.



파리에서 유로스타를 타고 해저터널을 통과하여 런던에 도착하였다. 영국 장애인올림픽을 개최중이어서 그런지 행사도우미들이 역 앞에서 밝게 웃어주며 “LONDON summer 2012 map” 이라고 되어있는 관광 여행 지도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숙소로 이동하는 길 양측으로 보이는 풍경이 편안하다.

시민들의 주택은 황토색 벽돌로 지어져 보통 100년 내지 130년 이상이 되었고 나무들도 대부분 키가 크고 숲이 울창하였다.

런던에서는 대영박물관, 버킹검궁전,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부 등을 관람하였다. 그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에서 가장 높은 고딕 양식의 중세교회라고 한다. 42명의 영국 왕과 여왕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대관식이 펼쳐지는 장소로 유명하며,

왕족의 결혼식, 장례식도 이곳에서 펼쳐진다고 한다. 3000명이 넘는 이들의 무덤이 있다. 그중 처칠의 묘, 엘리자베스 1세의 묘, 헨리 7세의 묘,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묘 등이 가장 유명한 무덤이라고 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버킹검 궁전〉

버킹검 궁전은 영국여왕의 런던 공식 주거지라고 한다. 버킹검 궁전은 왕실 근위병 교대식이 유명하나 우리가 버킹검 궁에 도착하였을 때 교대식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었고 수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영국은 아직까지 왕족이 남아 있는 나라이다.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가 정책에는 직접 참여하는 않지만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한다. 밖으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 역할을 하고, 안으로는 자선사업, 공공사업 등을 펼친다고 한다. 또한 나라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경우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 안정과 통합에도 노력하는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한다.

동해시 의원들과 합동연수라 더욱 뜻 깊었던 연수였고 연수를 통해 배우고 느꼈던 점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장영갑 부의장

유럽으로 가는 최단거리인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경로를 통하여 스위스 쥐리히 공항에 도착하였다.

훼손없는 자연 그대로의 보존, 스위스는 선진국



유럽의 젓줄이자 깨끗한 물의 원천인 빙하와 만년설이 있는 융프라우를 보기 위해 스위스의 첫번째 방문지인 조용한 마을 인터라켄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만든지 100년이나 된 산악열차를 타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융프라우요흐 라는 철도역에 도착했다. 스팅크스 전망대에서 보여지는 유럽에서

가장 긴 알레치빙하의 실로 근사하고 장엄한 마법과 같은 풍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알레치 빙하와 만년설은 유럽의 깨끗한 물 공급의 원천이자 알프스의 숨쉬는 자연을 만들어준 일등 공신 이었고, 빙하 아래로 조성된 얼음동굴은 자연이 만들어준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산 아래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목가적인 풍경, 자연이 선사해준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알프스는 전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다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원래 빙하 크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지금도 녹아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아쉽기만 했다.



인공적인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연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관리 하는게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청정함이 숨쉬는 알프스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KTX의 첫모델이 된 TGV를 타고 스위스에서 파리로 이동하였다.

곳곳에 친절함과 여유, 배려가 묻어나는 프랑스 파리

프랑스에서의 공식방문지로서 비영리 노인요양기관인 아레빠 요양원을 방문하였다. 입구 안내 데스크에는 우리를 환영하는 태극기가 붙어 있었고, 그와 함께 친절한 모습의 원장님과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요양원의 시설들에서 우리나라의 어둡고 암울한 요양원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요양원은 노인들이 집에서 사는 것처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였으며, 노인들이 병들고 나이 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고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존재로서 생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점차 요양원이 많이 생기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레빠 요양원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의 복지실태 및 인식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

다음으로 파리 시내에는 역사적 전통이 있는 건물들로 가득했고,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전통성 보존을 위한 도시설계의 세심한 배려와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의 발달이 유독 눈을 사로잡았다.

전통건축물과 옛모습 그대로의 거리 보존을 위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조그마한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통의 보존과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 등 모든 것을 배려한 정책인것 같았다.



또한, 가까운 곳을 이동하기 위한 무인 소형 전기자동차 대여시스템으로서,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내 어디서든 빌려 쓴 다음 목적지에 가까운 어느 대여소에 반납하면 되는 오토리브와 주민들의 연회비로 운영되는 벨리브 (자전거 보관소)는 주차 걱정과 주차료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유용한 제도였으며, 친환경 이동수단 확보를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관광상품으로서의 활용도도 제고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유로스타를 타고 해저터널을 통해 마지막 행선지인 런던으로 이동하였다.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곳, 영국 런던



영국 런던에서는 현재의 발전된 모습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통 그대로의 모습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 영국의 왕과 여왕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대관식이 펼쳐지는 곳으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트 사원, 영국여왕의 공식 주거지인 버킹검 궁전, 전세계의 수많은 유물들을 품고

있는 대영박물관 등 현재의 발달된 영국의 모습 속에서 너무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통의 모습들이 영국인들의 자부심에 찬 얼굴을 만들어 낸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현대적 감각의 화려한 건물과 거리, 광고판이 아닌 옛 건물과 좁은 거리, 자그마한 상점 간판이 달려 있어도 시가지가 깔끔하고 정비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전통과 현재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얼마나 큰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영국 런던을 마지막으로 짧은 연수일정을 마치면서, 세 나라 모두, 나라 깊숙이 구석구석 느껴지는 발전과 보존의 조화, 여유와 자부심의 모습 등에서 숫자와 규모에 치우친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미력하나마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김동진 의원

제2일(9월 4일)

취리히 공항근처인 호텔에서 조식 후 전용 차량으로 인터라켄으로 이동하였고, 이동하는 도중에 루체른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유명한 카멜교를 못보고 지나가는 것이 조금은 아쉽지만 차창에 보이는 주택들이 엽서에서 보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1시간 30분을 달려 인터라켄에 도착 산악열차 출발점인 오스트역에서 라우터 브룬넨 도착하여 톱니바퀴 기차로 갈아타고 그린덴발트에 도착하였음.

【융프라우요호 자연경관탐방】

융프라우요호(3454m)를 오르는 톱니바퀴기차는 14년에 걸쳐 아이거와 뮌히를 관통하는 터널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유럽 최정상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는 멋진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얼음궁전, 스팅크스 테라스를 관광 할 수 있다. 특히 전망대 스팅크스 테라스를 나서면 쌓여 있는 눈에 반사되는 눈부신 빛 속에서 웅장한 그 자태를 드러내는 융프라우 영봉과 크고 작은 빙하를 볼 수 있었고, 융프라우요호(3454m) 스팅크스 전망대에서 알프스 만년설의 전경을 감상, 오래도록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아름다운 여행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인 알레치 빙하 및 얼음 궁전을 둘러보고 열차편으로 오스트역으로 하산하였음.

융프라우요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얼음 궁전이다, 얼음궁전은 빙하 30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고, 거대한 얼음의 강에 굴을 뚫어 만든 얼음 궁전에는 다양한 얼음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다.



<산악열차>



<얼음궁전>

또한 그리넬발트(Grindelwald)는 켈트어의 “바위와 숲“에서 유래하여 ‘빙하 마을’이라고도 불리듯 이 마을 어귀까지 빙하가 흐른다. 아이거, 융프라우, 뮌히, 슬레크호른, 베타호른 등 알프스의 봉우리들을 거느린 인구 4,415명의 전형적인 알프스 산악 마을이다.

융프라우요호를 뒤로하고 오스트역으로 하산 한 뒤 전용차량으로 스위스 수도인 베른을 경유 유엔기구가 있는 제네바로 이동하였고, 제네바시청 등을 견학하고 T.G.V편으로 늦은 시간 파리에 도착하여 호텔에 여장을 풀었고 힘든 하루였다.

【제네바 시청 방문】

- 도시의 도로가 매우 좁고 국제기구 등이 있는 곳임.
- 시인구의 45%가 외국인임
- 제네바시 농사는 거의 짓지 않고 와인을 조금 재배하고 있으며, 시계, 은행 산업이 93% 차지함
- 뉴욕 다음 두 번째로 유엔 유럽본부가 있는 도시로 관련 600여개가 넘는 기구가 활동(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함)

【스위스 참고사항】

- 스위스는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로 금융, 경제, 상업등 문화의 도시임.
- 자원이 없는 나라임에도 관광업보다 제조업이 발달 된 나라
 - 시계, 의약품, 은행, 기계 산업이 발달
 - 척박한 자원 환경을 가꾼 나라임, 인구가 적음
- 언어 : 독일어 65%사용
- 스위스 대도시 해발 500m이상 고지에 도시가 형성, 타 인근나라보다 다소 추운지역임
- 제네바는 쥐리히 보다 낮은 지역으로 기온 따뜻한 지역임
- 농산물 : 해바라기(기름), 감자, 사탕무, 옥수수(짐승의 사료로 사용), 초지는 건초로 말려 짐승의 사료사용
- 표지판 색깔 : 고속도로 - 초록색, 지역 - 파란색
- 고속도로 차량 통행제한
 - 버스 : 100km, 일반자가용: 120km
 - 트럭(짐차) 운행시간이 따로 있음
- 산이 많아 터널이 많이 형성 되어 있음
- 고속도로 터널 내 SOS대피소를 250m 내외 설치 되어있음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터널을 자랑하고 있음

- 차량으로 쥐리히에서 남쪽방향으로 내려가는 구간 중 17km의 터널이 가장 길고 유럽에서는 2번째 긴 터널임
- 기차터널로서는 57km 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결정 된 정책에 대하여 재결정 토의 할 경우 연방 정부는 10만명, 주 정부는 5만명의 주민 서명이 있을때 정치에 참여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음
- 1년 내내 끊임없는 각종 대회, 전시 유치 - 자기네 마을을 알리고 있음
- 모형기차박물관, 전통 페러글라이딩대회, 유람선 툰호수 관람 등

제3일(9월5일)

아침6시 이전에 기상하여 호텔주변에서 간단한 산책과 함께 아침식사를 마치고 상제리제거리 등 도시문화탐방일정을 소화 하였다.

프랑스 파리는 동서로 12Km,남북으로 9Km의 면적 105.4km² 크기로 인구 약 270만명 일드프랑스 지방에 속한 8개주 가운데 하나이며 수도이다.

【아레빠 요양원 방문】

- 의료시설을 완비하여 금액이 다소 비싸고 지방은 1/2정도의 가격임
 - 1일 100유료, 1달 3,500유료(한화 5백만원 정도)
- 장비와 직원이 더 필요(의료시설이 되어 있음)
 -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화재가 가장 중요함
- 요양인은 65명 (직원 35명 1인당 2명 보호)
 - 의사 1명, 간호사 3명, 보조간호사 6명, 요리사 2명, 도우미 11명, 기타 직원은 청소인력임
- 본 시설의 특징 2가지 : ① 인간적인 관계 ② 전문기술
- 만약 가족 없는 요양인이 사망했을 경우
 - 법으로 정한 규정 범위 내에서 처리 함



<아레빠 요양원>



<아레빠 요양원 식당>

【 상제리제 거리 등 도시문화탐방 】

지름 240m의 원형 광장에 서 있는 높이 50m의 건축물로 프랑스 역사 영광의 상징인 개선문 (l'Arc de Triomphe)은 콩코르드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2.2km 거리에, 샹젤리제 거리의 끝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 개선문과 그 주위를 둘러싼 샤를 르 드골 광장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샹젤리제를 비롯해 12개의대도가 이곳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광장이 에트왈(etoile: 별, 방사형의) 광장으로도 불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문은 1806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착공 되었으나 그는 개선문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1920년 이래로 1차 대전에서 전사한 무명용사의 시신이 중앙 아치의 밑에 묻히게 되었고 매일 저녁 6시 30분에는 이 들을 기리기 위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샹젤리제 거리(Avenue des Champs-Élysées)는 파리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길이 2km의 대로이다. 개선문을 기준으로 뻗어 있는 12개의 방사형 길 중에 정면으로 있는 가장 큰 길이의 거리이다. 양쪽에 이름난 상점, 식당, 영화관, 여행사가 즐비하며 화려한 거리의 노천카페가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리도 쇼를 볼 수 있는 리도쏘 극장도 이곳에 위치한다.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콩코르드 광장(Place de Concorde)은 파리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샹젤리제 거리를 통해 개선문과 일직선으로 연결된다. 원래는 루이 15세 광장이었으나 프랑스 혁명 때 광장에 있던 루이15세의 동상을 파괴하고 혁명광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당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등 천여 명이 이곳에서 처형된 후 화합과 단결을 의미하는 콩코르드 광장으로 이름이 다시 바뀌었다. 중앙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광장 주위에는 프랑스의 8대 도시를 상징하는 여인의 조각상과 두개의 분수대가 있다

베르사이유 궁전(LE CHATEAU DE VERSAILLE)파리 서남쪽 23km에 있는 절대주의 왕권의 영화를 상징하는 대궁전이다. '집은 국가다' 라고 했던 루이 14세가 20년에 걸쳐 세운 궁으로 이후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앙트와네트가 호사를 누리다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비운을 맞은 곳이기도 하다. 건물의 규모면에서나 절대왕정의 예술품에서나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궁전이라 할 수 있으며 100ha 나 되는 대정원은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베르사이유는 찬란했던 절대 왕권 절정기인 1682년부터 1789년까지 프랑스의 정치적 수도이자 통치 본부였다. 프랑스 역사상 최고의 왕권을 누렸던 '태양왕' 루이 14세는 프롱드의 난 이후 파리의 루브르궁에 싫증을 느껴 사냥터였던 베르사이유에 화려한 궁전을 짓고 방대한 정원을 조성하여 거처를 이곳으로 옮겼다.



<베르사이유 궁전>



<베르사이유 궁전 내부>

제4일(9월6일)

4일차로 접어들어 어느 정도 시차에 적응되는 것 같았다. 새벽 2~3시경에 잠이 깨기도 하였는데, 어제는 숙면을 한 것 같다.

오늘은 노인 복지시설기관 및 세느강 유역의 유람선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기로 한 계획이며, 우리 단양에도 도담삼봉이 있어 도담삼봉에 유람선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 할 것이 있는지 살펴 볼 예정이다.

【 루브르 박물관 등 도시문화탐방 】

루브르 박물관(궁전)은 800년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세의 성에서 프랑스의 역대왕의 궁전까지, 그 후로는 미술관으로 그 건물양식이 발전해 왔다. 원래는 궁전으로 중세부터 프랑스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의 한 부분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국제적인 명성에 힘입어 궁전보다는 미술관으로서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1793년에 프랑스 공화국에 의해 설립된 루브르 미술관은 설립시기 면에서는 애슈몰린 미술관(1683년)과 드레스덴 미술관(1744년), 그리고 바티칸미술관(1744년)보다 늦지만 유럽에서 최대최고의 미술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루브르는 원래 미술관으로 사용될 계획은 아니었다고 한다. 현재에는 페이가 설계한 유리로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루브르를 대표한다.

세느강 유람선 운영은 바또뮤슈 외에도 파리지앵 등 운영선사가 있으며 우리일행은 바또뮤슈 선사 유람선을 타고 세느강 한바퀴를 1시간여에 걸쳐 파리 시내를 볼 수가 있었다.



<루브르 박물관>



<세느강>

몽마르트르 언덕은 로마교회와 관련해서 종교적 의미를 띄면서도 이곳에서 시대에 따른 미술 사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문화, 예술적인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오늘날, 주거지역이기도 하면서 역사, 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하여 오래된 파리의 전형적인 골목길을 거닐고 싶어 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600만에 이른다. 창작과 예술의 장소,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항상 계단 한편에서 그림을 그리는 무명화가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영화 촬영 현장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예술적 모습을 띄는 지역이 밤에는 환락가로 변하여 여성이 혼자 걷기에는 불안할 정도이다. 언덕을 내려와서 Clichy 대로가 있는 주변이 그러한데 많은 영화관, 극장, 술집들이 자리하고 물랭루즈가 위치한 곳도 이 곳이다.

제5일(9월7일)

아침에 호텔주변을 산책하고 식사후 짐을 전용차량에 싣고 파리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에펠탑 등 도시문화탐방 】

에펠탑은 1989년에 열린 프랑스 만국 박람회와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설계한 귀스타프에펠이 설계하여 세운 철탑으로 설계자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에펠이라 하였다고한다.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2층 전망대에 올라 파리 시내전경을 감상하고 왜 유럽하면 파리하고 하는지 몸으로 느꼈다. 점심식사 후 도버해협을 관통하는 해저터널 구간을 운행하는 유로스타 열차 출발역인 파리 북부역에 도착하여 탑승 수속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북부역 시설을 둘러보았다. 파리 북부역 시설은 국제열차가 출발하는 역사인데도 우중충하며, 노숙인이 많아 치안이 조금은 안 좋다고 느꼈다.



<에펠탑>



<몽마르뜨 언덕>

2시간 30분 소요되는 열차운행 하는 동안 파리에서의 일정을 정리해 보고 과연 단양군에 접목할 벤치마킹 할 것이 있나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 참고사항】

- 프랑스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150여 년전 마차길로 조성하여 거의 일방통행으로 걷는 동선이 길다.
- 화장실 : 거의 유료화이며 좁고 개수가 부족하여 사용에는 불편함
- EU 2002년 통합으로 국경간 여권 없이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함
- 날씨 :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은 건조함, 겨울 많이 춥고 난방시설이 잘 안됨 (전기난방 사용)
- 나라규모 : 유럽에서 3번째 큰 나라, 서유럽에서는 제일 큰 나라
- 인구 : 6천만명 (면적 55만평 115km)

- 지형 : 70% 평야 (우리나라와 반대임)
- 세느강
 - 교 량 : 교량 37개 (인도교 4개)
 - 길 이 : 770km (파리시내통과 12km)
 - 세느강을 따라 주변 아름다운 건물이 많음 : 루브르박물관, 의사당, 노트담 성당 등
 - 세느강 주변 산책로가 많고 한강에 비하면 강폭이 매우 좁음
 - 세느강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경관, 유적지를 보는 것임
- 파리는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도시
- 건물 주인이라도 외부는 마음대로 고칠 수 없음 : 기관에서 통제함
- 간판 2층 밑으로 설치, 현수막 없음, 간판크기와 색깔이 다름
 - 화려한 분위기는 아님
- 시내 자전거 보관소 3,000여개가 있음
 - 시내 자동차를 갖고 나오면 더욱 불편함(대중교통이 편리)
- 지하철 : 지하철 100년전 노선 16개로 하루 5백만명 정도 이용한다고 함
- 교 통 : 큰 차량은 없고 소형차 이용 주차 공간이 별도 없음
- 주 차 : 주차하기 어려우나 국민들은 불만 없이 잘 적응하고 있음
- 루브르 박물관
 -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다녀감 : 연간 7백만명
 - 세계 3대 걸 작품 소장 : 모나리자, 여신상, 비너스
 - 낭만주의 작품 다수
 - 박물관내 화장실부족으로 이용 불편
 - 제대로 보려면 7일정도 소요, 많은 사람으로 자세히 관람이 어려움
 - 단체(5-25인까지)가 더 비싸고 시간제한이 있음
 - 성수기 관람객이 너무 많아 잘 볼 수 없음
- 식사시간
 - 아침 : 빵과 우유로 간단히
 - 점심 : 60-90분 정도(근무시간에 포함)
 - 저녁 : 2-3시간 소요(천천히)
- 프랑스 인간상 :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강하다.
- 바캉스계절 거의 점포 문을 닫음
- 관광의 나라이자 갖은게 많은 나라이며 각종 전시가 많음
- 프랑스 음식중에도 한국 음식과 비슷한 음식도 많음
 - 예) 육회 : 고기 위에 노른자, 후추 뿌려서 먹음

- 오페라하우스 : 나폴레옹 3세 때 건축
- 리치호텔은 1997년 7월 마지막 날 다이나비 왕비가 식사하였던 곳이며 주변에 많은 보석가게가 있음
-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음
 - 프랑스 국민 가문이 갖고 있던 그림, 문화재 등 국가에 기증하는 사람이 많음
- 정치제도 : 대통령 중심제 (상, 하의원 구조)
- 전 시내 계획된 도시 100여년전
 - 지하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음(지하철, 전기, 상, 하수도시설)
 - 서울의 1/6규모이며 미래를 내다 본 도시
 -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 된 도시
- 앵발리드 : 상이군경회(루이14세때 건축)
 - 당시 부상별 치료 활용(현재 일부병원과 전쟁기념관 활용)
 - 나폴레옹시신 안치
- 문화예술과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나라
 - 원자력발전, 전기 생산 인근나라에 판매
 - 핵처리시설 세계최고
 - 에어 BUS(비행기)조립공장
 - 백신생산 절반이상 생산, 크고 작은 전시장 발달
 - 끊임없는 전시장 open(원단, 패션, 에어쇼, 워터쇼등)
- 제조업에서 탈피, 지식산업으로 변화
- 에펠탑
 - 건물 90층높이, 123년도 만듭
 - 당시 승강기 시설작동(2년 2개월 만에 만듭)
- 파리 시내 유네스코, OECD 건물이 있음
- 프랑스인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음
- 독특한 주차문화(주차공간이 좁아 차량 많이 훼손)
- 한국 KTX 프랑스 전철의 1세대 모델임 폐제배 3세대 모델임
- 프랑스 농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가 아주 까다로움
 - 과일 꺾지 않고도 그냥 먹을 수 있음
- 프랑스인 월수입의 38-80%까지 소득세를 내고 있음
 - 세금 많이 낸 만큼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 부유세도 있음, 조세저항은 없음(투명한 집행)
 - 감시 시스템이 매우 잘되어 있음(정부를 국민이 믿음)

-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가 자기가 해결해야함(우리나라와 다름)
 - 대학진학, 결혼, 취업 등
- 파리 시내 대형차량(트럭)이 진입할 수 없음, 작은 소형트럭으로 물류센터까지 운반
 - 미관저해 국가에서 통제(물류바지선 이용)
 - 자율도 중요 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 기본질서를 위해서 국가의 통제도 필요함
- 자유여신상 설치 : 미국 독립 100주년기념으로 프랑스인이 미국에 기증한 답례로 미국상공회의소(프랑스인)에서 미국에 있는 여신상보다 작게 기증 한 것임
- 타 시내 한국음식점(100여개정도)
 - 파리 시내 한국인 : 4,000여명정도
 - 프랑스 전체 한국인 : 13,000여명정도 살고 있음
 - 자장면 한 그릇 가격 : 2만원정도
 - 프랑스인이 한국음식을 좋아함으로 한국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음
- 서유럽국가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1년 중 유급휴가 6주
 - 시간외 근무 시켰을 경우 많은 비용 부담
- 여수엑스포 개최 여부도 프랑스에서 투표를 함
- 파리 시내 대표적 가로수 : 아로니아, 플라타너스 나무임
- 쓰레기 소각장 시설, 파리 시내에 있음
 - 폐열을 이용하여 물을 덥혀 주변 주택에 공급(에너지 재생)
-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음
- 에비앙 : 프랑스 물임(100년 되었음)
 - 유럽인은 강물을 먹지 않고 지하수 이용(미네랄 풍부)
 - 에비앙동네, 제네바에서 70km 1시간거리/ 온천수가 나옴
- 알프스산맥 1,200km(유럽 여러 나라를 끼고 있음) :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등
- 파리 시내 건물 석재 모두가 석회석을 이용한 돌임 : 지하층이 석회암지대
- 파리는 강을 끼고 발달 된 도시
- 유럽 국가 공무원 권위의식이 매우 높음
- 매년 7월 중순 부터 8월 중순 까지가 바캉스 기간이며 세느강 주변 약 2km 정도를 바캉스를 갔다 오지 못한 시민을 위하여 인공 백사장을 만들어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음
- 시내 미세먼지가 적음 : 시내바닥을 물청소를 하고 있음
 - 날씨가 좋은 날 테라스에서 식사, 일광욕을 많이 함
- 황금빛 햇불모양의 조형물
 - 다이애나 황태자비 추모비로 1997년 8월 마지막날 자라터널에서 사망

- 베르사이유 궁전(한국가이드 1명도 없음, 한국어 수신기 이용)
 - 연간 8백만명 관광객(프랑스에서 2번째 관광객이 많음)
- 노트담의 성당 연간 1천1백만명 관광객(최고 많음)
- 학생 공부보다 하고 싶은 학교로 보내고 있으며 대학 입학보다 졸업하기가 매우 힘들
 - 대학 학비 없음, 학교 국가에서 운영(다양한 혜택)
 -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
 - 주택보조금도 지급, 사교육 없음
 - 세계에서 최초의 부가가치세제도 시작(현재 19.6%임)
- 프랑스 무상급식제도 없음 :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으로 납부해야함
- 완벽한 금융실명제의 나라 :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음
- 철학의 나라(레닌도 파리에서 유학)
 - 대학진학에 앞서 철학교육을 많이 시킴
 - 교육은 사업이 아님(한국은 교육 사업이 되고 있음)
- 국가 소유의 주택과 토지 등 재산이 많은 나라
- 군인 징병제도가 아닌 모병제임

제6일(9월8일)

우리의 마지막 행선지인 런던의 워터루 역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숙소인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아침 모닝콜이 울리기전에 일어나 런던의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고 식사를 마치고 런던 도시문화 탐방을 시작하였다.

런던의 시가지로 들어서니 도로변 표지판에 “C” 표시된 표지판이 눈에 띄었는데 이는 도심 내 차량의 혼잡을 막기 위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심 진입시 £10 정도의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도심 진입전에 주유소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전에 티켓을 구입하여야 하며, 티켓 구입 차량이 혼잡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 의한 통행료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사전에 구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후납 할 수 있고, 후납 기간이 지난후까지 납부하지 않을시는 구입금액의 10배의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한다.

【 국왕의 왕실, 버킹검 궁전 등 도시문화탐방 】

국왕의 왕실, 버킹검 궁전(Buckingham Palace)은 1703년 버킹검 공작이 개인 주택으로 지었던 것을 1762년 왕실에서 사들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다시 단장했다.

버킹검 궁전은 1993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램브란트, 루벤스, 카나레또 등의 작품이 포함된 대규모의 왕실 소장품을 전시하는 픽처 갤러리(Picture Gallery)를 관람할 수 있다. 버킹검 궁전은 왕실 근위병 교대식으로 유명하다. 격일로 행해지며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되고 약 45분간 진행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확히 72cm의 보폭으로 걷는 근위병들의 모습은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고 있다.



<워터루 역>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관식이 펼쳐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딕 건축 사원으로 영국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3세기에 착공에 들어가 약 250여년에 시간동안 만들어져 16세기(1503년)에 완성된 사원 건물은 건축학적 견지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높은 고딕 양식의 중세교회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1066년부터 모두 42명의 영국 왕과 여왕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대관식이 펼쳐지는 장소로 유명하다. 그리고 왕족의 결혼식, 장례식도 이곳 에서 펼쳐진다. 역대 영국의 왕과 여왕, 정치가, 작가, 음악가, 기사, 배우, 왕족 등 3,000명이 넘는 이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기도 하다. 무덤으로 처칠의 묘, 엘리자베스 1묘, 헨리 7세의 묘,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묘 등이 있다.

국회의사당(Houses of Parliament)은 화이트홀이 끝나는 템즈 강가에 있으며 700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국 의회 정치의 전당이다. 이곳에는 원래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들어서 있었지만, 1834년 대화재 이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기 시작해 1860년이 되어서야 완공되었다. 대화재 이후 디자인 공모에 참가한 97개의 작품 중에서 Charles Barry and Augustus Pugin의 디자인이

당선되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뛰어난 예술가들과 합세해 만들어진 고딕 스타일의 의사당 건물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물 정면의 길이가 300미터가 넘고, 1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다. 그 유명한 빅벤은 높이 95m로 아직도 손으로 태엽을 감는 전문적인 시간지기가 있다. 꼭대기 조그만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의회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야경이 특히 아름답다. 국회의사당은 폭탄 테러 이후 입장이 어려워졌지만 방청 형식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영국의 상징, 타워 브리지는 템즈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는 빅토리아 스타일로 건축된 교각이다. 호레이스 존스 경의 디자인으로 1887년에 착공해 8년간 거친 공사 끝에 1894년에 완공되었다.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타워 브리지는 크고 작은 고딕풍의 첨탑이 있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중세의 성을 연상시킨다.

교각 중앙이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 큰 배가 통과할 때에는 90초에 걸쳐 무게 1,000t의 다리가 수압을 이용해 열린다. 타워 내부에는 타워 브리지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전시관과 빅토리아 시대부터 있었던 증기 엔진실이 마련되어 있어 사랑을 받고 있다. 엔진실에는 타워 브리지가 올라가는 원리를 설명하는 모형이 있다.



<타워브리지>



<대영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대영 박물관은 러셀 광장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찬란한 꽃을 피웠던 전성기 때의 그리스 문화와 고대 이집트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1753년 영국정부가 첼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스 슬론경이 소유하고 있던 화석, 주화, 메달, 사진 등 80,000점이 넘는 컬렉션을 사들였다. 소장품의 규모만으로 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박물관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 의회에서 대영 박물관 건립을 결정하였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들어온 엄청난 양과 질을 갖춘 골동품과 공예품, 유물들을 소장하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전시품을 위한 커다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1759년 착공에 들어갔고, 1823년부터 50년까지 약 30여년에 걸쳐서 83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랑스런 사자상, 트라팔가 광장(Trafalga Square)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한 영국의 영웅 넬슨 제독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건설된 런던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소 중의 하나이다.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곳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주변에 런던을 대표하는 많은 관광명소가 들어서 있다.

1820년대 트라팔가 광장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존 내쉬 였고, 1829년에 만들기 시작해 1841년에 완성되었지만 그는 완성된 광장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광장의 북쪽에는 국립미술관이, 동쪽에는 사우스 아프리카 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다. 광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842년에 세워진 51미터가 넘는 높은 기둥으로 그 꼭대기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서 있다. 실물의 3배 크기인 5.6미터의 넬슨 제독 동상과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국의 국가 동물인 사자상, 분수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국다운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사자상은 트라팔가 해전에서의 큰 승리를 기념하는 뜻으로 노획한 프랑스의 대포를 녹여서 만든 것으로 4면의 철판부조에는 트라팔가 해전, 나일강 해전, 덴마크·러시아·스페인 연합함대와의 전투기록이 담겨져 있다.

여유로운 휴식처, 하이드 파크(HYDE PARK) 80개가 넘는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런던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심공원으로 그 면적이 약 160만㎡에 이른다. 1536년 헨리 8세 때에 와서 왕실에 속하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수도사가 소유했었다. 아름다운 연못과 주위의 수목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휴식처를 제공한다. 하이드 파크의 동쪽에는 빅토리아 여왕을 위해 버킹검 궁전으로 가는 정문으로 만들어 놓은 마블아치(원래는 버킹검 궁전의 입구였었다)가 서쪽에는 켄싱턴 플레이스 자리하고 있다. 공원을 걷다보면 길을 따라 20개가 넘는 조각상들이 있어 좋은 볼거리를 선사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손꼽히는 것은 1822년에 Westmacott에 의해 만들어진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아킬레스를 조각한 웰링턴 기념비(Wellington Monument)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조각기술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극명히 보여주는 앨버타 기념비(Albert Memorial)도 유명하다.

【영국 참고사항】

- 파리와 영국간 해저터널
 - 설치년도 : 1980년도 설치
 - 터널길이 : 50km
 - 소요시간 : 2시간 30분소요
- 화폐
 - 1파운드 : 1,700~1,800원, 유로 : 1,400~1,550원
 - 화폐 : 파운드(구멍가게, 택시-파운드만 받음)
 - ※ 파운드 : 50, 20, 10, 5, 2, 1(2,000원) ← 지폐. 50, 20, 10센트 ← 동전
- 대중교통 (택시)
 - 블랙캡 택시는 요금이 매우 비쌈
 - 승객 : 운전기사 뒷모습을 보지 않고 승객끼리 마주고보 았음
 - 운전석 : 오른쪽 (우리나라와 다름)
- 대중교통 (버스)
 - 2층 빨간색버스 : 지붕 없는 것은 관광객이용, 지붕 있는 것은 일반인이 이용
- 런던의 명물 (빨간색) : 2층 버스, 전화박스, 우체통



- 대중교통(지하철)
 - 지하철 천장이 낮음 : 키가 큰 (190cm 정도) 사람은 머리가 다일 정도
- 교통 및 주차장
 - 도로가 좁고 작은차들이 많음 (일반통행길)
 - 시내 중심가 차를 갖고 차를 가지고 나오길 싫어함 : 진입료 2만원정도임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뜻임)
 - 국회 의사당도 주차장이 없고, 백화점도 주차장이 없음
 -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함 : 지하철, 버스가 편리함
 - 자전거를 많이 이용 : 길거리 자전거 이용

-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오른쪽, 왼쪽을 알리는 도로 바닥에 표시 되어 있음
- 순찰 경찰차가 잘 안보임 그러나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나라 (위반시 65파운드(13만원))
- 거리에는 옛날 마차길, 길을 넓힐 수 없음
- 날씨
 -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 편임
 - 2℃, 눈다운 눈이 없음, 하루에 사계절(일교차가 큼), 아침 쌀쌀한 날씨
 - 집안에 에어컨, 선풍기가 없음 : 여름, 겨울 일교차가 큼
 - 런던, 파리 : 날씨가 거의 비슷함
- 정치 : 입헌 군주제 (여왕, 귀족-공작, 백작)
 - 의회민주제는 800년 역사를 갖고 있음
- 경제 : GNP 4만불
- 산업 : 자동차, 3차산업 : 서비스, 금융 산업
- 사회복지제도
 - 의료 : 큰병에 걸린 국민은 국가가 무상진료
 - 교육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국립 경우-국가무료, 대학 3년과정)
- 종교 : 성공회(국교)-왕이 수장임
- 문화 : 뮤지컬 등
- 특산물 : 양모 산업
- 주택
 - 영국의 집 100년 이상임(영국인 옛날 전통을 좋아함)
 - 집구조 : 오래된 집들이기 때문에 방음자체가 잘 안되어 있음
 - 집들은 200-300년전 건축물
 - 주택가 건물 빨간색 보통 150-200년된 건물임 (빅토리아 양식)
 - 전세 개념은 없음
 - . 집을 빨리 사려고 하지 않음
 - . 집은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교육
 - 부모가 자녀가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시키지 않음
 - 자기 능력, 취미에 맞는 학교지도
- 런던올림픽 개최 시기 : 7월 26일 - 8월 12일
 - 100년 동안 올림픽 3번 개최 : 1908년, 1948년, 2012년
 - 올림픽개최비용 16조원 투입

- 템즈강
 - 다리수 : 25개
 - 길 이 : 147km
 - 수 심 : 8-9m 차이가 남(바닷물임)
- 영국 물가가 비싸다
- 영국은 EU에서 발언권이 강한 나라 : 인구기준임 (독일, 프랑스)
 - 노르웨이 EU 가입하지 않음
- 영국 공원 1,700개로 1인당 녹지 공간이 가장 높은 나라임
- 영국 전체 인구 6,020만명 : 런던 8백만명
- 런던 국제도시임 : 전 세계 135개국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나라
 - 거리 절반이 외국 사람
- 시내 : 선술집(서서 맥주 한잔 먹는곳): 맥주의 나라
- 영국은 섬나라로 되어있음
- 영국 수도 : 4개
- 영국내 한국 인구 : 4만 5천명 정도
 - 한식당 많지 않음(소주 한병 25,000~30,000원)
- 가게 : 09:30-10:30 문을 열고 18:00-18:30 문을 일찍 닫음
 - 저녁은 가족과 함께, 시내가 어두운 편임
- 유럽사람 행동이 좀 느리다
- 영국 흑맥주가 유명
- 런던 히드로 공항 : 히드로 공항내 터미널 5개소, 면세점은 크지 않았음
- 헤롯 백화점은 아랍인이 주인임 : 젊은 사람이 많 찾는 유명한 백화점
- 영국의 주식은 감자로 찌고 튀기고 함
- 영국에는 여러 궁전이 있음 : 현 여왕 86세, 황실의 어머니 104세 사망
- 거리를 깨끗하게 각종 규제가 엄격함 (건축법, 간판, 야경시설등)
- 영국인은 정원 가꾸기를 좋아함
- 세계에서 가장 멋진 국회의사당 (상원 - 빨간색, 하원 - 녹색)

정상례 의원

2012년 9월 3일 단양군의회의원 4명은 2년 전부터 유럽 연수를 계획했던 대로 스위스, 프랑스, 영국으로 출발했다. 처음의 계획은 7명 모두 가는 것 이었으나 4명만 출발 하였다. 출발 전에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되고 인터넷으로 날마다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인천공항에서 우리와 함께 연수 하게 될 동해시의원님들과의 인사를 나누었다.



스위스의 일정 프랑스 일정 영국의 일정에 비교적 새벽 4시30분부터 시작 되는 빠빠한 일정에 많이 벅찼지만 나름대로 그 어떤 연수보다도 알찬 연수였다 첫날 연수비용 절감과 비행기 예약을 임박하게 하여 직항로를 못하고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스위스에 밤 9시에 도착하여 공항 근처 파크인 호텔 숙박 2 일 쯤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하여 4시 30분에 버스에 올랐다 고속도로를 2시간 30분 후 인터라켄역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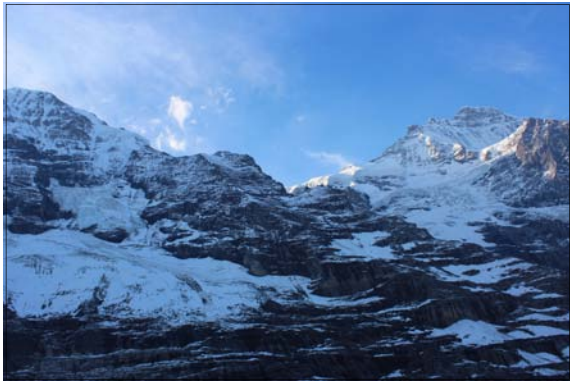
고속도로 옆에 대형 화물차들이 중간 중간 주차해 있었는데 공기 오염을 방지 하기위해 스위스는 고속도로에 대형 차량 운행시간을 정해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는 차량속도 제한이 심하다. 속도위반시 36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한다.

건물들의 난방은 전기로 난방을 하며 저녁 8시면 난방용 전기가 자동으로 차단 되도록 국가 시책으로 하여 벽난로가 집집마다 설치되어 들판에 집주위에 장작더미가 많이 보였다.

스위스에선 신호등보다 교차로 마다 원형 교차로(로터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규칙과 서로 양보하면 오히려 대형사고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라켄에서 기차를 타고 알프스산맥의 융푸라우 봉을 향해서 기차에 올랐다. 융푸라우는 성결한 여인 이라는 뜻으로 해발 3454m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스위스의 대표적인 산이다. 인터라켄에서 출발하여 라이텐 부르덴에서 기차를 클라이네 샤이넵역에서 톱니레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탔다. 소백산은 해발 1,435m, 소백산이나 양방산 개발에 필요할 것 같다.

빙하가 녹은물이 흘러 내려오고 푸른 잔디와 어울리는 건물들 제라늄이 피어 있는 예쁜 집들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다



〈스위스 풍경〉

아이거의 거대한 북벽 터널을 지나 만년설을 가득 담은 거대한 암벽들이 장군처럼 서 있다. 아이거 터널을 16년 동안 공사한 광부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해발 3454m에 이르자 숨이 차고 약간 어지럼을 느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상에 오르자 눈이 시렸다. 100년 전에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었다니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스위스 시가지에는 어디를 가나 도로 옆에 현수막이 보이지 않았는데 법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정말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보고 배우거나 벤치마킹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꾸고 배워야 한다.

3시간 20분이 TGV 기차를 타고 파리로 이동하였다. 오전에는 베르사이유 궁전을 탐방하였다. 궁전은 매우 웅장하여 화려하였다. 50년의 대공사를 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이동중 파리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자동식 간이화장실이 눈에 띈다. 관광객들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고 한다. 화장실 벽면에는 파리시내의 관광안내지도가 부착되어 있었다.



〈간이 화장실〉



〈병파쇄기〉

병 크기와 종류별로 해당되는 구멍에 넣게 되어 있으며 집어넣은 병들은 파쇄 후 쓰레기장으로 옮겨 재활용한다고 하였다.

파리 역시 네온사인의 화려한 광고물이나 돌출간판을 볼 수 없었다. 약국 정도는 네온사인의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도로변에는 노상적치물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단양읍 시내의 경우 일부 상가에서 인도에 노상적치물이 적치되어 있어 관광단양의 깨끗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 같다.

다음날은 세느강의 유람선을 타고 파리의 명소들을 둘러보았다. 200년 이상된 건물들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세느강에서 바라본 파리의 명소〉

단양의 경우 수중보 건설이 끝난 후 유람선이 운행할 것인데 이에 따른 볼거리가 부족한 것 같다. 파리 만큼은 아니지만 유람선을 타며 보고 즐길 수 관광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일간의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으로 출발, 해저터널을 통과하여 3시간 정도 지나니 영국이란다.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라는 대영 박물관을 찾았다. 파르테논 신전, 미라, 등 볼거리가 대단히 많았다. 그중 대한민국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규모는 작았으나 초가집과 어느 분이 기증하셨다는 청자, 도자기 등 큰 박물관에도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였다.



〈대영박물관〉

〈타워브리지, 사진전시〉

다음으로 간 곳은 템즈강 위에 있는 타워브리지이다. 열리는 다리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소규모 공연이 열리고 템즈강의 역사적 사진 전시 등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었으며 주변으로는 관광상품들, 먹거리를 팔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었다.

6박 8일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의원해외연수를 통하여 의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새로운 의정의 방향 설정에 많은 것을 배운 좋은 기회였다.

제 안 사 항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주차 공간 확보
 - ▶ 우리군의 경우에도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도를 줄여 주차 공간 확보
- 깨끗한 관광 단양 이미지 조성을 위한 도로변 노상적치물 및 광고물 정리
- 관광객들을 위한 자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 세계적인 이름이 있는 박물관에서도 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 판매자 코너 운영「기념품 판매」
 - ▶ 우리군의 경우도 관광지내 지역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필요(다누리센터 / 동굴 / 8경 관광지 등)
- 유럽의 경우 150여 년전에 건설된 도로로 오늘날 현실에서는 교통이 매우 불편함에도 국민이 잘 따르고 있음
 - 고속도로에서의 통행시간 제한(트럭), 대중교통 이용(주차 공간 부족)
 - ▶ 우리군의 경우 관광지로서 주정차 군민의식 교육 및 실천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
 - ▶ 시멘트사에 반입되고 있는 전국 폐기물 수송 차량에 대하여 반입시간 조정 필요(관광시즌 많은 관광객이 단양을 찾고 있음에 이미지 훼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각종 행사, 전시회 년중 개최 : 스위스, 프랑스, 영국 공통
 - ▶ 관광단양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마을 행사라도 지역 특성을 개발할 필요성 있음
- 기초 질서, 특히 교통질서 및 사회복지제도 선진화 : 국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초 질서(인간존중, 교통문화, 문화개발) 지키기의 이행과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시책이 잘되어 있음
 - ▶ 관광단양에서도 군민이 함께하는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 실천
 - 강력한 주정차 질서 지키기, 깨끗한 시내 가꾸기, 쓰레기 줄이기등
 - ▶ 노후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책 개발 필요

Ⅲ. 연 수 후 기

이번 해외 연수는 강원도 동해시 의회 의원들과 함께 연합하여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수기간중 선진국의 문화관광, 복지시설 등을 함께 둘러 보았다. 합동연수인 만큼 각 의회간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발전방안 논의 등 좋은 기회였다고 판단된다.

방문국의 모든 건물, 언덕, 강, 다리, 성당, 에펠탑 전망대에서, 세느강 유람선을 타고 바라보는 풍경은 문화이고, 예술이었다.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문화유산들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온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것들의 보존관리가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해외연수 시 미흡했던 부분들은 향후 해외 연수 시 좀 더 보완하여 발전 되도록 할 것이며, 연수를 통해 보고 느끼고 배운 것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접목시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 군의회와 군정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